

정·관계 250여명 참석... 협회대상등 표창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치협의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4월 29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종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엄종희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등 정관계 및 의료계 인사 및 내외귀빈, 대의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치협 감사, 경북지부 회장을 역임한 송영호 원장이 제30회 협회대상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서울지부 공보이사, 치협 공보이사를 역임한 양영태 원장이 제28회 치과의료 문화상을 받았다. 또 제13회 치과의료봉사상 수상단체로는 부산여자치과 의사사회(회장 이향련)가 선정돼 메달과 기념품을 받았으며 제25회 신인학술상은 허경희 서울대 치과병원 전임의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 장상건 전 대구지부 회장, 이근세 인천지부 회장,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김종환 전북지부 회장, 권영혁 공직지부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 표창, 김기덕 환경부 주사,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동준 나노싱크 사장, 민항석 메디플러스 대표이사, 정대하 형태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협회 감사패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난 1년간 치협 제25대 집행부에서는 안성모 협회장을 중심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가동,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공단과의 수가계약 등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는 한편 "의료시장 개방, 치과 의사인력 적정화 문제, 국민 양극화 문제 등에서 기득권 단체로 분류, 일부 언론계 질시 등으로 인해 의료 환경이 계속 어

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계 7만여 가족들이 일당백으로 굳게 뭉쳐서 어려운 의료 환경을 극복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임기 내 정책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십년 안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되찾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큰 목표 아래 CEO의 입장에서 회무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과 투자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서 비중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키워나가겠다"며 회무를 투명하게 회원에게 공개하고 절대 비밀스러운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종구 보건정책관은 "최근 치과계와 '구강건강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에서는 '국민구강건강증진계획(Health 2010)'을 통해 향후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며 이 같은 노력은 이 자리에 있는 치과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은 "치과계도 개원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논리적인 방법의 전개를 통해 치과 의사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 향후 꼭 필요한 자율징계권 문제 등 꼭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제출할 예정에 있으며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치협·문화일보 공동기획 '구강건강 관련 상식' 기획기사 연재 총 8회 분량... 매주 화요일 문화일보에 게재

국내 일간지중 하나인 문화일보가 치협과 공동으로 일반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구강건강 관련 상식을 기획기사로 연재하고 있다.

'건치가 건강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총 8주, 매주 화요일에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문화일보는 5월 2일 첫 기사를 시작으로 두 달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과 상식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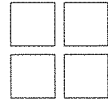
5월 2일 첫 연재된 '연령대별 치아관리 요령' 기사는 연령별 치아 관리 요령을 비롯해 국가별 어린이 1인당 충치 개수를 비교했으며, OX로 알아보는 치과 상식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손정열)는 앞으로 연재될 기획 기사는

주요 분과학회의 자문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열 홍보이사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 끝에 문화일보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이 어려웠으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치과 상식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나름의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이번 기획 기사로 인해 치과 의사 이미지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는 아울러 "이번 기획 기사를 계기로 일간지나 방송 보도를 통해 좋은 치과 의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5월 1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약은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1사(단체, 의료기관 등) 1복지시설(또는 무의촌) 결연운동을 펼쳐 적극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기로 했다.

또한 각 단체들은 헌혈운동도 함께 펼쳐 최근 부족한 혈액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소속 회원 또는 직원들이 헌혈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각 단체는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금연·절주 및 걷기와 균형 잡힌 식생활 운동에 솔선하면서 대국민 홍보·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병협, 한방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로기기공업협동조합, 건강관리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4개 단체에서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유시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협약식이 마련된 게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면서 "한 걸음 양보하고 봉사하면서 사회적 책무도 조화롭게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 "맹활약" 출범 7개월... 100건 처리 사례 분석

지난해 9월 안성모 협회장 직속으로 설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출범한 지 7개월여만에 100건에 달하는 회원 고충 사안을 해결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2005년 회계년도동안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은 ▲환자와 분쟁 ▲회원간의 분쟁 ▲업체 및 건물주와의 관계 ▲법 규정 ▲건강보험 관련 문제 등 총 100건이 접수돼 다뤄졌다.

이와 같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성적을 볼 때 올해에도 고충위가 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 회원들이 기려워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100건의 사안에 대해 ▲조언·조력 47건 ▲중재·조정 16건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3건 ▲안내회신 및 단순건의 31건 ▲이첩 3건 등으로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환자와의 분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건물내 치과의원 입점이나 덤핑행위 같이 회원들간에 발생한 분쟁도 16건에 달했다.

또한 인테리어업자나 치과기자재업체, 건물주, 약품도매상, 보험청구 프로그램 업체 등과 관련된 분쟁도 14건이나 차지했다.

고충위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에는 또 단순한 문의사항이나 심사평가원과의 문제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고충도 15건이나 있었으며, 간호조무사 엑스레이 촬영 문제 등 법규와 관련된 문제도 10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보조인력 구인의 어려움에 따른 법규정 완화요청을 비롯해 타 의료인의 진료영역 침해, 비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문제, 회비미납자 관련 등에 대한 사안도 8건이나 접수됐다. 한편 고충위는 치협 홈페이지내에 위원회 주요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다른 회원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월 17일에도 인테리어 공사 잔금 관련 건강보험지급액 가압류 해제 요청과 유니트체어 구입계약금 반환 거부 대응 요청 등 8건의 처리결과를 추가로 올려냈다.

고충위는 5월 30일 치협회관에서 2006 회계연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